

나주 흥어거리 명품화...미식관광 명소 '각광'

시, 미식여행 명소 지정...황포돛배 연계 코스 인기 홍스타·리리 등 캐릭터 조형물도 관광객 유입 효과

나주시가 영산포 흥어거리를 중심으로 남도 음식의 전통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결합한 미식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시설 정비와 콘텐츠 강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영산포 흥어거리 일대 노후시설을 정

비하고 보행 안전시설과 야간 조명, 안내 표지판 등을 개선해 방문객 편의와 거리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추진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의 성과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흥어거리는 기존 사업을 통해 홍스타, 리리, 돈돈이, 추추 등 캐릭터 조형물과 스토리텔링 종합안내관, 쉼터, 벽화 등을 조성해 관광 기반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맛'으로 있는 나주, 맛이나 미식여행' 지정 명소로 운영되며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이고 있다.

600년 전통의 흥어 음식과 함께 거리 곳곳의 캐릭터 포토존은 젊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어 새로운 미식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 역사 문화 자원과의

연계도 강점으로 꼽힌다. 영산포 역사 갤러리에서는 영산포의 변천사와 흥어의 유래를 살펴볼 수 있으며 타오르는 강 문화관에서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여기에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이 더해지며 미식과 역사, 체험을 아우르는 관광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용근 나주시보건의료장은 "흥어거리의 관광 인프라와 캐릭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차별화된 미식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홍스타 등 4종의 캐릭터



를 활용한 굿즈 개발 등 특화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미식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서비스 교육과 콘텐츠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만3146명의 군민이 이용하며 지역 대표 가족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남군청

해남가족어울림센터, 가족복지 공간 '자리매김'

연간 8만3000여명 방문...만족도 조사 결과 높아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만3146명의 군민이 이용하며 지역 대표 가족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가족어울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37㎡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 도서관, 실내놀이터, 동네카페,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동네부엌 등을 한 공간에 갖춘 복합 가족복지시설이다.

지난 2023년 3월 개관 이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아동 돌봄을 지원하고, 부모 참여 프로그램, 가족교육·상담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족어울림센터에 대한 높은 호응은 지난해 운영된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모두 평균 만족도 4.8점 이상을 기록한 데서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코칭스쿨은 오감·신체발달 놀이교실, 가족문화나눔,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으로 구성돼 총 90회기에 걸쳐 1849명이 참여했으

며, 평균 만족도 4.89점을 기록했다. 특히 오감·신체발달 놀이교실은 4.98점으로 전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프로그램 체계를 재편하고 이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가정 내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통합 누리집이나 가족어울림센터(061-534-0017)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통합 누리집이나 가족어울림센터(061-534-0017)로 문의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통합 누리집이나 가족어울림센터(061-534-0017)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 온라인 마켓 판로개척·디지털 역량 강화

참여 기업에 상품 홍보 기획·유통채널 입점 모집

고흥군은 농수산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고흥 로컬브랜드 온라인마켓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온라인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홍보 기획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사)지방사회연구원(수령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 둔 농업·농림업, 소기업(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으로, 농수산물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 온라인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특히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은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연매출 3억원 이상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약 7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이 자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네이버 페이 빈 리스팅 등록 지원, 스토리텔링 기반 홍보 페이지 기획, 전문 스튜디오 사진·영상 촬영, 디지털 마케팅 교육, 전문가 1대 1 맞춤 컨설팅 등이다.

참여기업 선정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사업 참여 의지와 사업계획 적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한다.

신청은 전남도 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5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판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순천,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순천대·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 등 참여

순천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친환경 농산물과 비유전자변형(Non-GMO) 식재료를 중심으로 잔류농약과 GMO 여부 등을 검사해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은 시와 분석기관, 학교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학교와 공급업체를 방문해 위생 상태와 식재료 신선도, 지역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는 잔류농약 463개 성분, GMO 5개 품목, 동물용 의약품 148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가 지정 분석기관인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와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 한국에스지에스(주) 등이 참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재료가 확인될 경우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납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신뢰받는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무상급식과 친환경·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해 총 15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기후행동 실천' 여수, 지구의 날 맞아 소등행사

오늘 10분간 소등...온실가스 감축 기대

여수시는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소등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주간 전국 소등행사와 연계해 '기후 위기 탈출구, 지역행동'을 주제로 열리는 '제19회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6' 기간 중 시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여수의 대표 교량인 돌산대교와 선소대교를 비롯한 주요 공공시설물도 소등에 동참해 지구의 날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행사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가정, 사무실, 상가 등에서 자발적으로 전등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만가구가 참여할 경우 2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수령 30년 나무 약 2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시 관계자는 "지구의 날 소등행사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다"며 "지역 대표 시설과 시민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 전남건강버스 활용 맞춤 진료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곡성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형 공공의료 서비스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며 농촌 주민 건강권 보장에 나섰다.

군은 최근 목사동면 신전1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했다.

건강버스는 병원이 마을 반경 5km 이내에 없는 의료 취약지를 직접 찾아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장에는 곡성군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공공보건사 등 의료진 8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의료원장은 의과 진료에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현장 중심 진료를 강화했다.

의료진은 혈압·혈당 측정을 비롯해 골

밀도 검사와 체지방 측정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의과 진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구강진료는 물론 침·뜸·온열치료 등 한방진료도 병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건강버스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버스가 직접 찾아가 진료와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반면 기존 의료체계로는 이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게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2023년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정기 운영되고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고흥, 남부 바다 1500ha '대청소'...해양 생태계 회복

정부 공모 사업비 50억 투입 폐기물·해양 퇴적물 처리

고흥군이 해양 생태계 회복을 위해 대규모 바다 정화사업에 나선다. 군이 해양수산부 '2026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 50억원이 재원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되며, 도양·금산·포두·동일·봉래 등 남부권 해역 약 1500ha가 대상이다. 해당 환경 정비가 주된 사업으로 양식장 바닥에 쌓인 폐기물과 오염 퇴적물 수거·처리에 중점을 둔다.

해당 해역은 참돔과 바지락 등 패류는 물론 김과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이 활

발한 지역으로, 지역 수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곳 해역은 어장 과밀화와 환경 노후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군은 어장 환경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기반이 조성돼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군은 2021~2022년에도 득량만과 여차만 일대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선정돼 총 100억원을 투입, 3300ha 규모의 어장 환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고흥=고효성 기자 city@gjdream.com